

광주 출생아 수 급감...10년 새 반토막

지난해 12.5% 감소...전남 1만명대 붕괴
합계출산율 최고 영광군·최하 광주 서구

광주·전남 지역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20년 호남·제주 출생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광주의 작년 출생아 수는 7,318명으로 전년 대비 12.5% 감소한 1,046명을 기록했다. 광주 출생아 수는 2010년 1만 3,979명에서 2017년 1만2,000명으로 급감한 뒤 지난 2018년 9,105명을 기록하며 1만명대

가 붕괴되는 등 약 10년 새 47.6% 감소하며 반토막났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 또한 지난 2019년 5.8명에서 2020년 5.1명으로 전년 대비 0.7명 줄었으며, 이는 지난 2012년 9.9명에서 8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 또한 2019년 32.81세에서 지난해 33.08세로 출산 시점도 늦어졌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 또한 0.81명에 그쳐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역시 작년 출생아 수가 9,738명을 기록하는 등 2015년 이후 5년 연속 줄어 최근 10년 새 41.5%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1만명 대가 붕괴됐다. 조출생률 또한 5.8명에서 5.3명으로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전년대비 0.09명 줄었으나 1.28명을 기록한 세종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으며,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 또한 32.41세로 전년과 동일했다. 호남·제주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46명을 기록한 전남 영광

군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서구로 0.71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제주 합계출산율 상위 10순위에는 ▲장흥군(1.77명·2위) ▲해남군(1.67명·4위) ▲장성군(1.51명·7위) ▲고흥군(1.46명·8위) ▲완도군(1.44명·9위) ▲영암군(1.38명·10위) 등 7개 군이 포함됐다. 반면 합계출산율 하위 10순위에는 ▲광주 서구(0.71명) ▲광주 남구(0.75명·2위) ▲전남 목포시(0.80명·3위) ▲광주 동구(0.80명·4위) ▲전남 곡성군(0.81명·6위) ▲광주 북구(0.83명·7위) ▲광주 광산구(0.90명·10위)가 포함됐다. /오지현 기자



“접어서 가방에 쏙...가볍고 따뜻”

파루, 잉코 전기 매트·담요 휴대·보관용이 캠핑족 인기
앵플 편딩서 목표액 8,500% 달성...인쇄전자기술 적용

순천소재 ㈜파루 계열사인 파루인쇄전자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잉코(INKO)’가 생산하는 ‘잉코 전기매트·담요’가 캠핑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다. ‘잉코’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오픈한 ‘잉코 전기매트·담요’가 앵플 편딩에서 목표액 8,500%를 달성했다. 와디즈를 통해 선보인 ‘잉코’는 최첨단 인쇄전자기술로 이용해 면 형태로 발열하는 접단 고효율 발열 방식인 필름히터 기술을 접목했다. 특히 발열 핵심 재료인 은나노 잉크를

필름에 인쇄해 열에너지로 발열하는 원리가 적용됐다. 일반 담요보다 2배 더 넓은 면적으로 딱 찬 온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잉코 전기매트·담요 제품은 1mm 두께감과 1kg이 채 안되는 초경량으로 휴대성과 보관성에 용이하다. 가정, 사무실 등 온기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전기담요의 경우 극세사, 전기매트의 경우 스위치 소재를 사용해 온열감 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닿는 사용감까지 탁월하다. 오염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캠핑에서도



가벼운 이염 및 오염물은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 제거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최근 ‘차박’과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잉코 제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잉코 측의 설명이다. 잉코 관계자는 “1차 편딩 때 많은 분들

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편딩 종료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앵플 편딩까지 진행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서미애 기자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부터 시행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만

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ICT 쇼핑 플랫폼

QVING

골프장에서, 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제품을 큐빙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엑스퍼온이 만든 Vending Machine

골프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43인치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신개념 자판기입니다.

www.xperon.co.kr 문의 TEL. 02-2070-5009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호남지회 출범

초대 지회장에 김동기 하이랜드(주) 회장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이윤상)는 27일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9, 동양빌딩 19층에 위치한 협회 호남지회(초대 지회장 김동기) 대회의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기념영상물 상영, 호남지회 지회장 선임, 위촉패와 현판 전달, 이윤상 협회장 및 김동기 지회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윤상 회장(㈜유성 회장), 김동기 호남지회장(하이랜드(주) 회장), 김선관 부회장(㈜삼일산업 대표이사), 조정훈 부회장(㈜원포유디앤씨 대표이사), 임완근 하이랜드(주) 부사장, 이진숙 하이랜드(주) 부사장, 이명규 교수(광주대학교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원장), 김덕은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로 대표 변호사, 임대차분쟁 조정위원), 정병운(사단법인 빛고을부동산 포럼 대표) 등 내·외부 인사가 참석해 현판식을 축하했다. 이윤상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장은 “분양서비스업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 전반의 새로운 흐름속에서 빠르게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번 호남지회 개설이 호남지역 회원사 확대 및 본회와 호남지회 회원사간 상호협력 적극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동기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호남지회장은 “분양협회 본회와 호남지회간 교류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협회(KODA) 호남지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분양서비스협회와 부동산개발협회의 정보교류 및 정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상호 협력에도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미애 기자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7일 협회 호남지회 대회의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제공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캐스퍼 사주기’ 운동 전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는 27일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자리 성공을 위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완성제품인 ‘엔트리 SUV 캐스퍼 사주기 운동’을 통해 상생형 지역자리 성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연합회는 “GGM 설립을 통해 국내에 23년만에 완성차 공장 준공과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켰다”며 “GGM 제1호차 캐스퍼를 생산해 9월14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갔고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모두 해결됐다”며 “이용섭 시장 재임 3년 만에 광주시민과 국민을 위한 새로운 산업 경제부흥의 희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애항심이 가득한 우리 시민과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세계가 주목하고 기대하는 세계형 일자리 완성으로 이어지고 더욱 승승장구 발전할 수 있도록 캐스퍼 사주기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